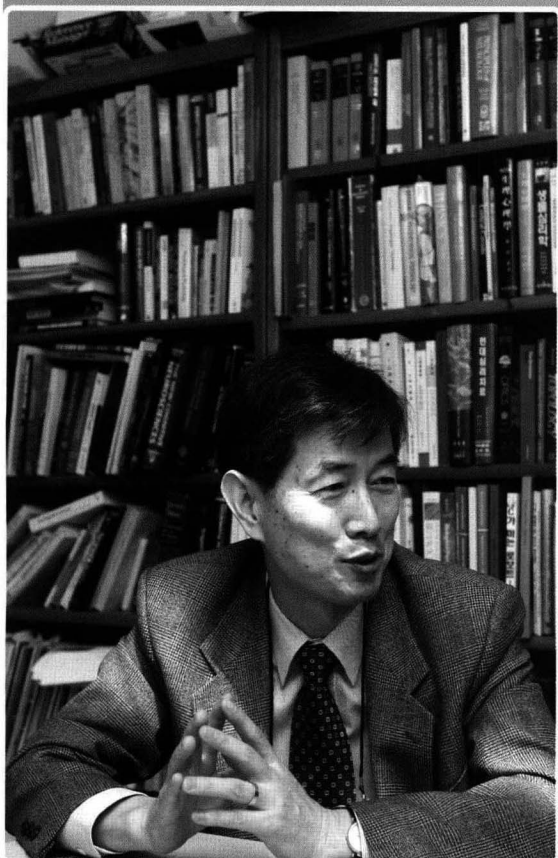


눈, 마음을 말해주는 그 미세한 움직임을 읽다

《한글을 읽는 시선의 움직임》낸 심리학과 교수 이춘길



“네 눈을 보니 알겠어. 눈이 말해주고 있잖아!” 낭만적인 영화대사처럼 들릴지 모르나 전혀 생뿔맞은 소리도 아니다. 서울대학교 이춘길 교수에 따르면 시선의 움직임과 방향만으로도 상대방의 마음을 간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자폐증 환자를 비롯, 몇몇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곤 인간은 자신의 시선으로 의식을 전할 수 있다.

“원숭이의 흰눈동자와 검은 눈동자는 색깔 면에서 크게 구별이 안 갑니다. 80종의 영장류를 연구한 결과 흰 눈동자와 검은 눈동자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동물은 사람 밖에 없지요. 그런 이유로 지구 생명체 중 유일하게 사람의 시선은 방향 읽기가 용이합니다.”

“눈의 움직임이 의식을 표출한다”니 의식 자체도 중요하겠거니와 눈의 움직임에 주목하는 게 순리일 터. 본래 뇌세포가 시각을 어떻게 구현하는가를 학문의 주된 관심사로 남겨뒀던 이 교수는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선의 움직임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무의식중에 인간의 시선이 가장 많이 머무는 곳이 어디인가를 먼저 따져보니 그것은 다름 아닌 책! 《한글을 읽는 시선의 움직임》에는 이처럼 한글로 적힌 책을 읽는 사람들의 시선 움직임을 측정할 연구과정이 담겨 있다.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과연 움직이는 건 맞는지, 주체도 느끼지 못할 만큼 미세하게 움직이는 눈의 이동을 측정하려 했다는 것만으로 참신한 연구 저작물이다.

“일단 자기장 안에 코일을 넣고 자기장과 코일의 각도에 따라 전류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험 대상이 코일을 콘택트렌즈처럼 붙이고 뭉가를 읽습니다. 그러면 코일이 이동하는 게 측정됩니다. 그 이동폭이 바로 글을 읽는 시선의 움직임이지요.”

0.1도로 움직이는 눈의 미세한 떨림까지 탐지할 수 있다는 측정장치도 장치지만 이로써 도출된 실험 결과 또한 참으로 낯설다. 글을 읽는 우리의 눈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 오른쪽으로 순차적인 움직임을 시도하나 실상은 전혀 다르다는 결론이다. 한 줄의 문장을 읽는 동안에도 눈은 바쁘게 활동한다. 한 곳에 머무르다가(고정), 글줄의 방향으로 일정한 크기만큼 빠르게 이동하고(도약), 그 지점에서 또 일정한 기간을 머무르다가 다시 다음 지점으로 빠르게 이동한다. 이 교수는 고정, 도약의 반복을 도표로 그렸을 때 계단식 그림이 그려진다고 설명한다.

“실험대상은 읽기 능력이 우수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건하에 한자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실험을 해보니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더군요. 안구운동이 계단식을 보여주지 않았던 것이죠. 한 글자에도 여러 곳에 고정하면서 전체적으로 볼 때 부드럽고 연속적인 움직임을 했습니다.”

한자에 익숙지 않았던 학생의 시선은 글자를 중심에 두고 이리저리 맴돈다. 그만큼 정보를 습득하는 전략이 세련되지 못했고, 글을 읽을 줄 몰라 망설였다는 흔적이다. 이 교수는 이런 데이터만으로도 인간의 읽기 능력을 평가하고, 한 인물이 특정 학문에 얼마나 숙달

때 있는가를 평가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한편 이 교수는 이번 실험을 통해 인간이 한 번에 네 글자씩 정보를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로써 사용자 중심의 책을 만들 수 있다는 것. 글을 아무리 많이 펼쳐놓아도 인간이 한 번에 습득하는 글자 정보는 네 자로 결정돼 있으니 네 글자로 된 정보를 던져주고 지우는 것을 반복하면 수용자는 시선을 크게 움직일 필요가 없다. 사용자의 시선 이동을 최소화하고 읽기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책읽기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종이책은 불가능하겠지만 호출기, 핸드폰 등의 모바일 페이지에선 충분히 시도 가능한 얘기다.

“요즘 일반화된 인터넷 페이지에서 시선이 어떻게 움직이나 실험도 해봤습니다. 페이지 자체가 워낙 비선형적이니 눈의 움직임도 비선형적이더군요. 컬러 이미지가 있는 곳, 헤드라인 등에 눈이 먼저 가고 남성의 경우는 자신의 관심분야가 있는 곳에 유난히 시선을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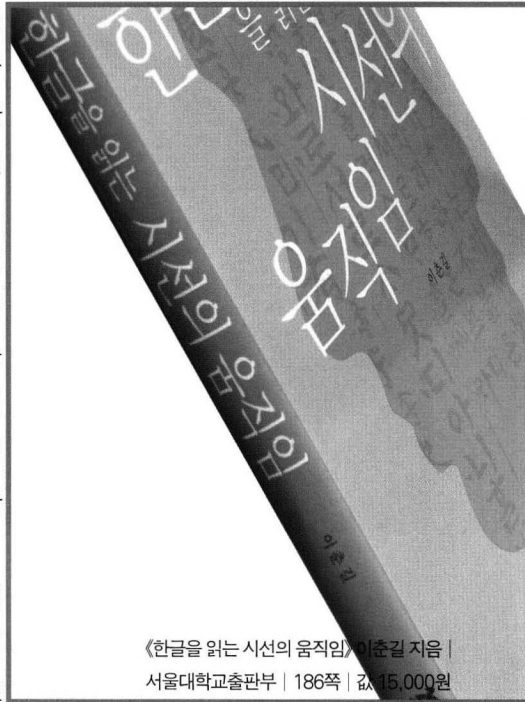
단순한 실험처럼 보이지만 책에서 시도된 시선 경로 찾기는 정보 제공자에게 독자정보를 습득케 하는 유용한 자료가 된다. 특정 페이지를 읽는 독자가 어떤 흥미를 갖고 있는지, 어떤 기사가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 시선을 끌 수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어떤 배열이 시선을 당기고, 어떤 디자인이 다수 독자들의 시선을 자극하는지도 추측이 가능하다. 이같은 연구는 국내에선 시도되지 않던 읽기 주체, 즉 수용자 중심의 연구이기에 그 의미가 깊다.

“히브리어, 영어, 일본어를 읽을 때의 시선에 관한 연구는 참 많습니다. 쉽게 의문을 가질 법도 한데 우리나라에선 이런 연구가 부족하더군요. 전 한글학자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한글은 가장 우수하고 과학적인 문자라고 해서 문자체계, 계통 등을 연구하는 사례는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전 수용자 중심의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글을 읽는 시선의 움직임》을 통해 한글학자들에게 새로운 과제거리를 던져준 이 교수는 현재 서울대학교 내에서 ‘안구운동연구실’을 책임지고 있다. 눈의 운동을 연구한다 하니 낯설기 짝이 없지

만 생각보다 주요골자를 이해하면 별스러운 연구도 아니다. 눈의 운동과 뇌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려는 시도라고 이해하면 점차 시각 이미지에 예민해지고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연구라 부를 만하다.

사실 ‘안구운동연구실’이라 하니 눈과 관련해 문의를 해오는 사람들도 꽤 된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눈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도 있고 반대로 눈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면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다. 때론 안과에서 해결할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문의도 있어 당황스러울 적도 많다.



눈과 관련된 다양한 문의를 접한 이 교수는 “현대인들은 특히 속도 부작용을 많이 느끼는 것 같다”고 말한다. 이번 책의 후반부에도 잠깐 언급했듯이 크게 점프해 읽거나 대각선 읽기를 시도하는 속도법은 부작용이 크다. 글을 읽으며 눈이 움직이는 폭을 의식하니 일상생활에서도 자신의 시선을 의식하는 심리를 갖게 된다는 말이다. 오히려 이 교수가 추천하는 ‘책을 빨리 읽는 법’은 매우 쉽고 간단하다.

“글의 다음 내용을 예측하면서 읽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요. 시선이 크게 도약하면 할수록 고정하는 횟수도 4분의 1초씩 감소하거든요. 예컨대 4자 단위마다 시선을 고정하는 기간이 일정하게 유지되면, 전체 고정에 소요되는 기간도 감소해 읽기가 빨라지지요. 이를 위해선 글에 대한 이해를 효율적으로 하는 게 필요합니다. 각별한 비결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 읽다보면 어느 순간 속도가 붙지요.”

꽤 오랜 시간에 걸쳐 완성한 연구자료이니 빨리 내놓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을까. 그렇지만 이번 책은 시간을 들이더라도 그림 자료를 충분히, 정확히 활용하는 데 역점을 뒀다. 일반독자들의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서다. 물론 한글만의 독특한 특징을 기초삼아 여러 언어를 비교 연구하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있다. 이런 문제들은 한글 자체에 대한 연구자들의 연구와 이 교수의 안구운동 연구가 함께 축적될 경우 곧 언어질 수 있는 결과물이다.

이 교수는 ‘눈은 곧 마음의 창’이라는 말을 믿는다. 아무리 미세한 움직임이라도 시선의 이동을 읽어내면 사회적 접촉과 잠재 능력, 심지어는 의식까지도 발견할 수 있다는 것. 안경과 컬러렌즈 등 갖가지 포장술로 교묘하게 가려진 사람들의 시선. 당신이 무엇을 읽고 그것을 얼마나 이해했는지를 읽는 또 다른 시선이 여기 있으니 교묘한 눈속임은 이제 금물이다. **◆◆**

취재 김청연기자 · 사진 박신우기자